

거대자본 중국의 이해와 기업유치를 위한

# 의원 및 직원 연수 결과 보고



무안군의회

# 거대자본 중국의 이해와 기업유치를 위한 의원 및 직원 연수 결과 보고

## 1 연수 개요

### ■ 연수목적

-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상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직접 알아보고 그 원동력을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및 전략 모색
- 중국의 거대시장과 거대자본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를 역이용하여 대중국의 시장 개척과 한중미래도시에 투자를 유도하는 대안을 모색
- 중국 청도지역 한인회와 조선족기업인 그리고 청도상무국을 방문 한중미래도시 홍보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활동 전개
- 1국 2체제의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 운영 상황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재탄생한 특별자치구 운영 체계를 알아보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모색
- 중국의 신흥 선진도시로써 짧은 기간동안 엄청난 기적 같은 발전을 이뤄낸 도시들의 최근 발전 근황에 중점을 둠.
- 침체에 있는 무안공항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공항을 이용하여 연수를 실시함.

■ **연수기간** : 2011. 5. 23(월) ~ 2011. 5. 28(토), 5박6일

■ **연수장소** : 중국(상해, 칭도), 홍콩, 마카오



■ **연수인원** : 11명

번호	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비고
1	무안군의회	김 산	의 장	017-252-4009	
2	무안군의회	김 천 성	부 의 장	010-7110-4500	
3	무안군의회	정 길 수	의회운영기획위원장	017-620-2733	
4	무안군의회	정 철 주	행정문화복지위원장	010-6291-3917	
5	무안군의회	임 덕 수	의 원	010-6663-9030	
6	무안군의회	최 옥 현	의 원	010-5609-1086	
7	무안군의회	김 운	의회사무과장	010-3415-5689	
8	무안군의회	이 덕 인	전 문 위 원	010-2632-9150	
9	무안군의회	김 진 만	직 원	010-6222-8974	
10	무안군의회	김 애 자	직 원	010-7631-2568	
11	무안군의회	장 순 호	직 원	018-691-7276	

2

세부연수일정표

연수일정 6일(홍콩 · 마카오 · 청도 · 상해)

일자	지명	교통	시간	일정
제 1일 5/23 (월)	무안 상해 홍콩	MU5058 MU 510	10:30 12:10 12:40 16:00 18:30	무안공항 집결 무안 출발 / 상해 푸둥공항 향발(1시간 20분) 상해 푸둥공항 도착 후 항공편 연결 상해 출발 / 홍콩 향발 홍콩 도착. ◎홍콩야경 빅토리아 피크, 마담투소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하버프라자 노스포인트 호텔
제 2일 5/24 (화)	홍콩 마카오	전용차량 페리	17:00	호텔 조식 후 ◎이색적인 풍경 리펄스베이 해안경관 시찰 ◎동양 최대 해양공원 견학 ◎페리편으로 동양의 라스베가스 마카오 이동 ◎최대의 카지노 호텔 베네시안 리조트 견학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골든드래곤 호텔
제 3일 5/25 (수)	마카오	전용차량 페리	17:00	호텔조식후 ◎세나도 광장 주변 시설 견학 ◎김대건 신부님 조각상이 있는 카모에스공원 ◎꼬로안마을(성프란시스코사비에르성당), 성안토니오 성당 홍콩 귀환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하버프라자 노스포인트 호텔

일 자	지 명	교 통	시 간	일 정
제 4일 5/26 (목)	심 천 청 도	KCR ZH9929  전용차량	07:45 10:45 오 후	호텔 조식 후 심천공항 이동 심천 출발 청도 향발 청도 도착 기업도시 관련 설명회 ●재청도 한인회 사무실 방문 ●청도 조선족기업협회 방문 ●청도시 상무국 방문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청도 힐튼 호텔
제 5일 5/27 (금)	청 도  상 해	전용차량 MU5516  전용차량	09:30 10:45 오 후	호텔 조식 후 공항 이동 청도 출발 / 상해 향발 상해 도착 ●동방명주탑 견학 ●상해 도시계획전시관 시찰 ●상해의 건축박물관이라 불리는 외탄지역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성고 홀리데이인 호텔
제 6일 5/28 (토)	상 해  무 안	전용버스 MU5057	08:55 11:20	호텔 조식 후 공항 이동 상해 출발 / 무안 향발 무안 공항 도착.

### 3 주요 연수 내용

#### ▣ 홍콩 (HONG KONG)

##### 1. 홍콩의 기본 현황

● 공식명칭 : 홍콩 특별행정구(中華人民共和國 香港特別行政區)

● 위 치 : 중국 광둥성 남쪽해안

● 면 적 : 1,104km<sup>2</sup>

● 인 구 : 692여 만명

##### ● 행정 구역

홍콩은 홍콩 섬과 구룡반도와 신제 및 그 밖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음

☞ 홍콩섬: 중서구(中西區), 만자구(灣仔區), 동구(東區), 남구(南區)

☞ 코룡반도: 유침왕구(油尖旺區), 심수부구, 구룡성구(九龍城區), 황대선구(黃大仙區), 관당구(觀塘區)

☞ 신제: 사전구(沙田區), 서공구(西貢區), 대부구(大簿區), 북구(北區), 원랑구(元朗區), 둔문구(屯門區), 전만구(筲灣區), 규청구(葵青區), 이도구(離島區)



[21세기 홍콩의 현재]

## ● 연 혁

아편전쟁후(1840~1842) 중국은 1842년 남경조약에 따라 지금의 홍콩 섬을 영국에 할양하였다. 그 후 Arrow호 사건을 계기로 제2차 아편 전쟁(1856~60) 후에 1860년 북경조약을 체결하고 지금의 코룽반도 (Boundary Street 이남)와 스톤커터(Stone Cutter)섬을 추가로 할양하였다. 또한 1898년 제2차 북경조약에 의거하여 신계지 및 235개 부속 도서에 대한 99년간 (1898.7.1~1997.6.30)의 조차계약을 체결한다. 영국이 지배권을 가지게 된 후 홍콩은 영국의 주요 무역항으로 자리잡았으나 1941.12월 일본이 홍콩을 침략하면서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1945.8월 다시 영국이 식민지 지배권을 회복하게 되면서 1946년 홍콩 총독부가 재수립되었고 1967년 홍콩 총독부를 홍콩정청으로 개칭하게 된다. 그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1984년 중국과 영국 양측은 1997년에 홍콩의 주권을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1997.7.1 중국이 주권을 회복하고 지금의 홍콩특별행정구 설치하게 된다.

## ● 교 통

홍콩의 교통체계는 홍콩의 경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홍콩교통은 버스, 철도, 지하철, 픽트램(Peak Tram), 페리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다. 버스는 대부분이 이층버스인데 관광지를 중심으로 16인승 미니버스도 운행되고 있다. 오래된 홍콩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전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홍콩트램은 1904년에 설치되었으며 1888년 이후 홍콩의 높고 가파른 지대에 맞게 픽트램이 고안되어 함께 운행되고 있다. 또한 철도교통은 열차(KCR), 지하철(MTR), 그리고 경철(LRT)등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홍콩섬과 코룽반도를 연결해주는 스타페리는 홍콩의 대표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1998년 7월에 새롭게 개항한 란타우섬의 홍콩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유동인원이 많은 공항 중 하나이며 첵랍콕국제공항이

라고도 불리운다.

홍콩은 지난 2000년부터 도심의 보행환경 개선과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풀타임 보행도로(Full-time pedestrian street), 파트타임 보행도로(Part-time pedestrian street), 교통 진정 도로(Traffic-calming street) 등 세 가지 종류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했는데 풀타임 보행도로는 차량통행이 전면 제한되고, 파트타임 보행도로는 정해진 시간대에 차량통행이 금지된다. 교통 진정 도로는 보도를 넓혀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개선시켰다. 이러한 도심내 교통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홍콩정부는 홍콩내 섬과 주변도시들과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홍콩-광저우간 최고 시속 203km에 이르는 고속열차가 개통되었으며, 홍콩 반환 10주년을 맞아 선전과 홍콩을 잇는 선전만대교가 개통돼 홍콩-대륙 간·육상 관문은 3개로 늘어났으며, 오는 2015년에는 홍콩, 주하이, 마카오를 연결하는 총연장 35km의 강주아오(港珠澳)대교가 완공될 예정이다. 강주아오 대교가 완성되면 홍콩에서 출발하여 마카오-주하이-광저우-선전을 거쳐 홍콩으로 되돌아오는 주장강 삼각주 경제권을 아우르는 원형도로가 개통되게 된다.

## ● 인 구

2007년 상반기 현재 홍콩의 총인구수는 692만1,700명에 달한다. 홍콩 정부가 주관하는 <홍콩 2030연구>에 따르면 홍콩의 인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연평균 0.7% 상승하여 오는 2030년에는 840만명, 그리고 2036년에는 약 860만명 선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향후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홍콩의 총 생산력은 2010년 4%에서 2030년 3%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처럼 최근 홍콩의 인구구조와 유출입현황을 볼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들어난다. 지난 수십년간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타지역(특히 중국 본토)에서의 유입인구가 최근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본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홍콩 이주의 유인이 감소한데 기인한다. 이러한 이주 인구의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는 향후 노동인구의 감소와 사회 후생비용의 증가 등으로 홍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도시 경제

### 1) 경제발전 과정

홍콩경제는 중계무역에서 수출가공무역으로 그리고 다시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을 밟아왔다. 1984년 영국이 홍콩을 자유항으로 선언한 이후 홍콩은 중국과의 중계무역항으로써 은행, 창고, 운수 등 무역관련 산업이 발달되었다. 이후 중국본토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륙에서 기업가와 숙련공 등이 유입되었고 중계무역으로 축적된 자본과 본토로부터 유입된 자본 등은 1950년대에 홍콩을 중계무역에서 수출가공무역으로 전환하는 물적 토대가 되었다.

이후 1970년대 초에 아시아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제적인 금융회사들이 홍콩으로 몰려들었고 이는 홍콩 금융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1972년 오일쇼크 이후 홍콩은 달러화에 연계한 환율제도를 구축하면서 금융센터의 지위를 공고하게 다지게 된다. 그리고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개방은 홍콩을 세계자본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국자본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하였고 이는 홍콩의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 2) 도시 경쟁력

세계경제포럼(WEF)이 131개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발표한 “2007~2008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하여 34위를 기록했으며 홍콩은 전년대비 2단계 하락하여 12위를 기록하였다. 그 중 홍콩은 상품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면에서 131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인프라스트럭처, 거시경제 안정성, 노동시장효율성 등도 5위권 안으로 높은 점수

를 차지했다.

그러나 혁신도와 시장규모는 각각 23위, 27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2007년 3월 25일 중국사회과학원에서는 “2007년 중국도시경쟁력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200개 도시의 종합경쟁력 순위를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의 종합경쟁력은 2006년에 이어 중국 내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중 품질경쟁력 등은 1위를 차지했으나 구조경쟁력과 인프라시설은 3위, 성장경쟁력은 200개 도시 중 198위를 기록하였다.

실제 중국 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인력이나 기술, 품질과 관련된 사항들은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콩의 도시자체 경쟁력은 대내외적으로 조금씩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정부는 2001년부터 “홍콩2030”을 통해 도시발전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전과의 탈국경 “통합도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 홍콩주요 관광지 탐방

### ◎ 백만불짜리 야경 빅토리아 피크(The Victoria Peak)

홍콩섬 최고도에 위치한 이곳은 각종 홍콩영화에서 야경장면을 촬영하는데 단골로 이용되는 곳이다. "영웅본색"의 경우도 그랬고, "도신"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랬다. 이 외에도 많은 영화에서 이 곳을 촬영 장소로 택할 만큼 풍경이 수려한 곳이다.

빅토리아 피크에서 본 홍콩의 야경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스카이 라인을 이루고 있다.

두 개의 지역이 바다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이를 유유히 떠다니

는 유람선과 정크선들, 이곳에서 홍콩의 야경을 바라보며 일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다.



〈홍콩의 야경〉

### ● 마담 투소(Madame Tussauds) 밀랍 인형 박물관

밀랍 인형 박물관인 "마담 투소"의 창시자, 마담 투소는 1761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생후 2개월째 아버지가 Franco-Prussian 전쟁에서 돌아가신 후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가정부의 딸부터 왕실의 개인교사,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까지, 단두대에서 도망치기도 하며 그녀의 전 귀족 친구와 고용주의 데스 마스크 제조 마력을 가졌던 그녀는 허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소재로도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왕실과 대중으로부터 꾸준히 능력을 인정 받아온 그녀는 1794년 그녀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필립 커티스의 밀랍 인형 전시관을 이수한 후, 1802년 영국에서 그녀의 이름을 걸고 전시회를 열면서 밀랍 인형 박물관, 마담투소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8월에 문을 연 마담 투소 홍콩은 아시아의 국제적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마담 투소 홍콩에서는 데이비드 베컴을 만날 수 있으며, 액션 영화 속의 성룡과도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유명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아시아 유일의 마담 투소 밀랍 인형 박물관에는 100여개 이상 유명인들의 밀랍 인

형을 보유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밀랍 인형을 보고 실제 인물인지 착각을 하기도 하며, 아이들은 밀실에 갇혀진 괴기스러운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하지만, 이곳을 방문하는 모두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마담투소 밀랍인형〉

### ● 리펄스 베이

리펄스 베이란 돈 많은 홍콩인들이 하와이에서 모래를 사와서 해변을 만든거라 합니다.

홍콩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관광객들에게도 꼭 한번 방문하게 되는 유명 관광지



〈리펄스 베이 해변〉

## ◎ 동양 최대 해양공원(오션파크)

동남아시아 최대규모의 수족관과 워터시설인 오션파크는 많은 홍콩 방문객의 일정에 가장 선호되는 곳으로 특히 어린이를 동반하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다.

오션파크의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며 놀이시설, 돌고래쇼, 케이블카와 해마, 독특한 쇼핑과 훌륭한 식사와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필름 판타지아 시뮬레이터 영상관, 공룡탐사트레일, 고대 세계의 발견, 세계최대 산호수족관도 그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투명한 아크릴로 만든 상어수족관에는 11.5m 길이의 터널을 갖춘 상어 전시탱크가 설치되어 멋진 수중경관을 볼 수 있다.

해양극장에서는 돌고래와 잠수부들이 고난도의 묘기를 펼치고, 한 면이 유리로 처리된 웨이브코브에서는 펭귄과 물개들이 살고 있다. 또한 72m의 높이를 자랑하는 오션파크타워는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225m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도착하게 되는 미들킹덤에서는 기원전 2205년 부터 서기 1911년 청시대까지의 중국의 13개 왕국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동양 최대 오션 파크〉

### ▶ 현장 기록

- 리펠스 베이에 5평 아파트로 있으며, 평당 1억은 보통, 성룡 등 홍콩 유명배우나 갑부들이 살고 있다 한다.

- 정부아파트 주변은 개발이 잘되어 교통, 전기, 가스, 시장 등이 편리하나 민간 아파트는 밤에 택시도 안다녀 불편 하다고 한다.
- 홍콩은 양도소득세가 없어 부동산거래가 활발하며 부동산으로 갑부가 된 신흥 부자들이 많다, 또한 주택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본토의 부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가격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 〈홍콩의 삼성 간판〉

-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삼성의 홍콩 LED 홍보용 간판으로 월49억원의 옥상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간판은 신기하게도 홍콩 스타의 거리, 빅토리아항, 침사추이 등 어디에서나 정면으로 간판이 보이는 최고의 명당자리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간판이 홍콩에 중심지에 우뚝 서 있는 모습에 뿌듯함과 자긍심을 갖게 한다.
- 홍콩의 관광객 중 80%이상이 중국 본토 사람인데 호텔에 투숙하지만 아침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식사중에 소란스럽고 아무데서나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는 등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해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거부감을 느껴 중국 정부의 조치라고 한다. 70년대 우리나라 관광객도 이러한 경우가 있어 조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대

우를 한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케 한다.

- 홍콩에는 예식장, 짐찐방이 없으며, 예식은 홀을 빌려 하루종일 행한다 한다.
- 홍콩스타 성룡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후에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는데 도교문화의 영향으로 베풀면 돌아온다고 믿고 있으며 사후에 신격화 되는 경우가 있다 한다.
- 홍콩에 세금 수익이 많아 국민에게 환원(1인당 500~100만원 정도)해 주고 있으며, 전기세는 2만원 정도 경감, 난방은 불법(필요 없음), 모든 전기, 가스, 물은 중국 본토에서 끌어다 쓰고 있고 중국 본토는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 ■ 마 카 오(MACAU)

중국의 작은 어촌에서 무역항의 요지를 거쳐, 이제는 도박과 휴양지로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이다. 중국의 남쪽 반도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마카오는 높은 인구증가율과 급성장한 경제, 유럽과 동양문화와의 융화된 독특한 마카오만의 문화를 도시전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1. 마카오의 기본 현황

● 공식명칭 : 마카오 특별행정구

● 위 치 : 중국 광둥성의 남부, 주강(珠江) 하구 서안(西岸)에 위치(홍콩에서 약 60Km, 중국 광주에서 약 145Km 거리에 위치) 중국 광둥성 남쪽해안.

● 면 적 : 26.8km<sup>2</sup>

● 인 구 : 450,000 여명

● 기 후 : 열대 해양성 기후 (연평균 기온 :23.2℃)

● 종 교 : 불교, 기독교 등

● 언 어 : 중국어(광둥어) & 영어(공용어), 그 밖에 북경어 및 포르투갈어

## ● 마카오 중국 반환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는 442년의 포르투갈 식민통치의 종영을 알리며, 중국에 이양되었다. 이로써, 홍콩의 반환에 이어, 중국은 마카오의 반환으로 상흔으로 남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리하게 되었다. 중국은 '일국2체제'원칙에 입각, 특별행정구로서의 외교와 국방문제만을 제외한 채,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다.

## ● 지 형

진주강(Pearl River) 입구, 조그만한 반도에 자리잡고 있는 마카오는 인접섬인 타이파(Taipa), 콜로네(Coloane)과 2.5km, 4.5km 길이의 다리로 각각 연결되어 있다. 콜로네와 타이파는 2.2km의 간선도로로 연결했다. 남쪽끝과 반도 끝이 만드는 좁은 해협은 중국의 주하이(Zhuhai) 종산(Zhongshan)으로 연결되는 게이트웨이를 형성하고 있다.

## ● 기 후

마카오의 1월 ~ 3월까지는 겨울로, 햇볕이 든 쌀쌀한 날씨를 보인다. 4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여름은 뜨겁고, 습도가 높으면, 열대성 태풍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 맑게 갠 가을은 10월에 12월까지로, 마카오를 방문하는데 최적기이다. 평균습도 73~90%, 년중강수량 1,016 ~ 2,032mm이다.

## ● 통 화

통화 단위는 파타카(Pataca: MOP)와 아보스(Avos)로, 1파타카는 100아보스로 동전과 지폐가 있다. 소액권은 10, 20, 50 아보스의 동전과 10, 50, 100, 500 1000 파타카의 지폐가 통용된다. 파타카는 포르투갈의 에스쿠도나 중국 위엔으로 변동환율이 적용되고, 홍콩달러와는 HK\$100.00 = 103파타카 비율의 변동환율은 10%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홍콩에서는 마카오 통화가 통용되지 않으므로, 환전시 각별히 주의해

야 한다. 외화 및 여행자수표의 환전은 호텔, 은행, 환전소 등에서 가능하다.

## ◎ 마카오의 역사

"마카오(Macau)"라는 이름은 뱃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중국여신, '아마(A-Ma) 혹은 링마(Ling Ma)'에서 기인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청명한 날 남지나해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배가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다. 배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의 재앙에 절망하였다. 그때, 매혹적인 젊은 여인이 배를 타고 그들 앞에서, 폭풍우가 가라앉도록 명령을 했다. 놀랍게도 순식간에 폭풍우는 멈추고, 바다는 다시 평온해 졌다. 이후 더 이상의 사고 없이 배는 안전하게 호이키앙(Hoi Keang)항에 도착하였다. 여인은 해변에 내려, 바라(Barra)언덕 정상에 올라, 후광과 향기를 뿜으며 승천하였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승천한 그곳에 사원을 세워 그녀를 모시기 시작하였다. 16세기, 포르투갈 선원이 이곳에 내려, 원주민에게 지명을 물으니, 그들이 "아마가오(A-Ma-Gao: 아마 만)"이라고 했다. 그 후, '아마가오'를 줄여 '마카오'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서구 열강중의 하나였던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아오다 20세기 중반 들어 마카오의 자치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포르투갈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영토권을 주장하여 포르투갈은 중국의 영토권을 인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일국가 이체제'라는 원칙에 입각한 4차 협상 끝에 마카오 반환 협정이 체결되었다.

마카오는 주변지역과는 차별되는 독특한 색채를 지녀왔다. 오늘날 중국, 포르투갈의 조화로운 융합문화를 유지하면서 색다른 문화를 싹틔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되었지만, 중국의 특별 자치지구로써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마카오의 정확한 명칭은 '마카오 특별 행정구이다.

## ● 마카오의 산업경제

마카오의 4대 경제는 무역·카지노관광·부동산·금융 등이고, 그 밖에 의류제조·신발류가공·담배제조와 성냥·폭죽 제조 등의 경공업, 금(金)의 수입자유화에 의한 거래이윤 등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방직품·전자제품·완구·조화[造花] 등이다.

마카오 전역에 걸쳐 농경지가 될 만한 평지가 매우 적어 식량은 자급도(自給度)가 낮아 홍콩 등지를 중계지로 한 아시아 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과거에는 어업이 성하였으나, 근래에는 쇠퇴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 홍콩주요 관광지 탐방

### ● 마카오 최대의 카지노 호텔 베네시안 리조트 견학

400년 동안 넘게 쌓아온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 25개의 세계문화유산 등 고유의 정체성으로 다른도시와 확연히 차별되는 곳, 최근 몇 년사이 마카오가 급격히 떠오르게 된 것은 '아시아의 라스베가스'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거머쥐면 서다. 자국민만이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을 없애고 국제 자본을 개방한 이후, 세계 거물급 카지노 호텔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라스베가스가 사막 위에 이뤄진 신화라면, 마카오는 바다위에 이뤄진 신화이다. 200년전 바다를 매립해 건설한 도시 마카오는 최근 더 많은 카지노 시설을 세우기 위해 간척사업을 벌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개발 구역인 코타이 스트립 부지가 타이파섬과 콜로안 섬 사이에 있는 바다를 매립한 것이다.

꿈을 실현한 베네시안 리조트는 98만m<sup>2</sup>로 이루어진 곳으로 미식축구장 56개와 맞먹으며 747 점보비행기 100대를 수용 할 수 있는 규모이며, 토지개량에 사용된 모래를 쌓으면 피라미드만큼 된다.

실내에는 3개의 운하에서 51척의 곤돌아가 있으며, 전체 용적률

은 천안문광장 두배 크기, 하루 전력량 30만가구의 아파트에 공급할 전역량, 실내 장식에 300만 금 잎사귀 사용하고 대규모 연회장 1만5000석, 1800석 규모의 극장, 1000석의 푸드 코트 등 상상을 초월한다.



<베네시안 내부, 지붕의 하늘은 화가가 그린 그림>

◎ **세나도 광장 (Largo do Senado Square)**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세나도 광장은 마카오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다. 유럽에 와있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유럽풍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광장의 바닥은 물결 모양의 예쁜 타일로 장식되어 있으며, 밤이 되면 주변의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불을 밝히며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세도나 광장에 위치한 시청광장>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세도나 광장〉

◎ 김대건 신부님 조각상이 있는 카모에스공원

카모에스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시인이자 군인의 이름이다. 그의 이름에서 따온 공원 내에는 한국의 김대건 신부 동상이 있다. 이곳에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 있는 것은 김 신부가 마카오에서 수학했기 때문이다. 그는 1821년 8월 충청도 솔피에서 태어났고, 1837년 6월 마카오에 왔다. 1845년 8월 중국 상하이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1846년 9월 서울 새남터에서 27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동상은 1985년 10월 한국 천주교 주교회가 제작했고 1997년 6월 홍콩과 마카오의 한인 신자들이 보수해서 이곳에 봉헌했다. 마카오에서는 김대건 신부를 상당히 유명하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카모에스 공원에 있는 김대건 신부 동상〉

### ◎ 정면과 계단만 남아 있는 성바울 성당(The Ruins of St.Paul)

마카오의 유명한 관광명소 중의 하나로 1602년에서 1637년 사이에 이태리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설계되어지고, 종교 박해 때 나가사키에서 도망 온 일본인 기독교 장인들의 도움으로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1835년 성바울 성당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물의 정면과 계단, 벽의 일부만을 남긴 채 모든 것이 소실되었다. 벽의 일부는 나중에 철거되어 지금은 성당정면과 계단만 남게 되었지만, 이 성당이 얼마나 정성 들여 지어진 것인가를 짐작케 해준다.



〈성바울 성당, 계단과 정면〉

### ◎ 성안토니오 성당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로, 과거 포르투갈 사람들이 결혼식을 많이 올렸다 합니다.

그래서 꽃의 성당이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김대건 신부님의 목조동상이 있어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한국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관광 포인트.

### ◎ 마카오의 땅끝마을, 콜로안 빌리지

드라마 '궁'의 마지막 촬영지로 유명한 작은 어촌 해안가 마을. 콜로안 마을은 더욱 오붓한 휴식과 산책이 가능한 고요한 해변 마을이다. 마카오 최남단에 위치한 어촌 마을인 이곳은 카지노와 고층건물 건설이 규제된 지역이라 고풍스러운 낭만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콜레안마을 해변가, 마을안>

### ▣ 청도 맥주로 유명한 도시 청도(靑島:칭다오)

지역의 이름을 딴 청도 맥주와 노산의 깨끗한 광천수로 유명한 도시 청도는 산둥 반도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부와 서부가 황해에 인접해 있는 산둥성의 대표도시다.

대구광역시와 우호 관계를 맺었으며, 전 축구감독 김정남이 청도 海牛(Hainiu) 프로 축구단의 감독을 역임한 곳으로 한국과 인연이 많은 곳이다. 예전에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지만 1898년 독일에 의해 개항된 이후 급속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그 영향으로 도시가 마치 작은 독일에 온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 이유 때문에 '중국속의 유럽'이라는 애칭도 갖고 있다.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로서, 지방 정부와 동등한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도시 전체의 면적은 10,654km<sup>2</sup>이며, 총 679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연평균 기온은 12℃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776mm이다.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하며,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은 봄과 가을이다.

## 1. 청도의 기본 현황

● 위 치 : 태평양서안, 산둥반도 남단에 위치.

● 면 적 : 10,654km<sup>2</sup>(시구면적이 1,102km<sup>2</sup>).

● 인 구 : 699만명(시구인구가 229만명).

● 행정구역 : 7개 구(區), 5개 관할시.

### ● 자 원

- 자연자원. 발견된 광산자원 44종. 석묵(石墨), 식면화강암(飾面花崗石), 식면대리석(飾面大理岩), 광천수 등.
- 관광자원. 산과 바다를 겸한 경치 수려하고 기후가 온화한 중외에 유명한 피서성지. 1998년 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중국 관광도시 칭호를 부여.

### ● 역 사

청도는 젊은 도시이다.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이 곳에 1891년 청 정부는 군사를 파견하여 청도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897년 11월에 독일에 의해 점령당했고, 1914년 11월 독일에 이어 일본에게 점령당했다. 1922년 12월에 회복되었지만, 1938년 1월에 일본에 의해 또다시 점령당했다. 1945년 8월 항거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에 국민당 정부에 의해 회복되었으나, 곧 미국의 해군 기지가 되었다.

시내 곳곳에서 독일식, 스페인식, 일본식 등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청도의 과거 식민지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특히 근 20년 이래로 청도는 놀라운 변화를 이룩하여 대외 무역 항구, 해양 과학 연구 도시, 관광 도시 등의 특성화된 도시로 성장하였다.

## ● 경제 현황

중국 8개 국제회의 도시중 하나로 관광도시며 15개 부성급 도시중 제9위 차지. 해상 운송량은 상해 다음으로 전국 제2위. 1998년 국내 총생산치는 880억원.

### • 농업

농업 총생산총액 224억원, 농업기계 총동력은 346.1만와트시. 경작지 면적은 48만헥타르, 농전 관개면적 29.4만헥타르.

### • 공업.

공업총생산액 945.7억원. 이윤 실현액 21.6억원, 공업증가액 365억원.

### • 제3차산업

1998년 제3차산업 330억원의 증가치를 완성하여 전시 국내생산총치의 37.5%를 차지.

### • 관광업.

1998년 국내외 관광객 1,033.5만명 접대, 관광수입 69.1억원으로 산동성 제1위.

## 2. 청도의 이해

식민 지배의 역사는 분명 치욕의 기억이다. 하지만 중국 산둥(山東)성의 항구도시 칭다오(靑島)는 그 아픈 과거조차 자원으로 삼아 도시의 내일을 일구어 나간다. 칭다오가 독일의 조차지(租借地)였던 시절 지어진 유럽식 건물들은 해변을 따라 고색창연한 이국풍의 경관을 만들어 내면서 이 도시의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이 되고 있다.

과거를 간직한 건물들은 칭다오를 단순히 승승장구하는 경제 도시로 서만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청정 도시로 자리 매김하게 한다.

해안선을 따라 길게 형성된 칭다오 시는 도심을 동서로 나누는 타이핑(太平) 산을 기준으로 서쪽은 오래된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역사 지역이, 동쪽으로는 새로 개발된 현대적 시가지가 들어서 있다. 도

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옛 도심을 허물고 그 위에 신시가지  
를 건설하지 않고, 도시를 동쪽으로 확장한 것은 칭다오 시의 현명한  
판단이였다.

칭다오의 매력은 서로 다른 시간대의 공존이다. 해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걷거나 도시 전체의 조망이 가능한 신하오(信號) 산에 올라  
가 시가지를 굽어보면 이 도시의 과거와 현재가 한눈에 들어온다.

### ●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칭다오는 1897년부터 20년 동안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 기간  
에 근대 도시로 발전했다. 서쪽 해안지구에 남아 있는 많은 유럽풍의  
건물들과 거리는 그 시절 개발됐다.

빨간 박공지붕을 인 누런색 벽돌집들이 옹기종기 모인 서쪽 해안은  
숲과 잔디에 둘러싸인 완만한 언덕배기다. 독일 건축가들이 개발한  
이 지역은 독일 양식의 건축물 외에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러  
시아,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일본 등에서 유행한 양식의 건축  
물들이 남아 있어 ‘건축 박물관’이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다.

장강중 거리에서 만난 린홍(林宏) 씨는 “칭다오가 중국의 어느 도시  
와 다른 점은 ‘중국 안의 유럽’을 느낄 수 있다는 독특한 개성 때문”  
이라고 말했다.

식민시대 건축물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데는 ‘건축보존협회’의  
역할이 컸다. 1982년 칭다오 시 문화재관리국에 흡수된 이 협회는 첫  
사업으로 시내의 많은 역사적 건물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  
음에는 독일 정부가 주둔했던 총독부나 영빈관 같은 중요 공공건물  
들만이 포함됐지만 점차 그 대상을 민간 소유의 주택이나 상업건물  
에까지 확대했다. 이 작업은 2005년까지 일곱 차례 계속돼, 이제 리  
스트에 기록된 건물은 모두 220개에 이른다. 보호 대상은 단일 건축  
물만이 아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이나  
돌로 포장된 가로(街路)까지 포함된다.

건물이 공식적으로 등록되면 정부의 보호와 관리를 받게 된다. 지정된 건물의 외부는 개조할 수 없고, 내부는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다. 등록된 역사적 건물로부터 50m 떨어진 곳까지는 보호구역을 설정해 건물을 함부로 짓지 못하게 한다. 또 200m 내에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시 당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화재관리국의 류홍옌(劉紅燕) 씨는 “이런 건물들의 보존은 단지 역사적 가치로서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 주변 항구도시와 차별화의 길

중국의 도시들은 대개 매년 7% 이상의 성장 목표를 내세우는 야심찬 개발계획을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도시개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해야 할 몫을 대부분 대형 건설사 등 ‘시장’이 맡아 하고 있다.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광저우(廣州), 다롄(大連)이 내세우는 도시개발 전략도 한결같이 ‘세계 제일의 항만 건설’ ‘세계 최고의 조선소’ 등 성장 정책 일변도다.

도시들은 경쟁 관계다. 특히 항구도시의 경우 인접한 두 도시가 동시에 성장하기는 힘들다.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항구도시들 사이에서 칭다오는 개성 있는 도시 환경과 역사유적으로 차별화의 길을 찾았다. 칭다오 시청 건설국의 판난 씨는 “칭다오 시의 강점은 도시가 구역별로 성격이 분명하면서도 다른 구역으로의 이동이 쉽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옛것을 허물고 손쉽게 새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새것과 나란히 둘 때, 그 가치는 대조를 통해 배가된다. 칭다오는 지금까지 ‘환경보호 모범상’, ‘도시 녹화상’, ‘거주 환경상’ 등을 수상했다.

## ▣ 청도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 보고서

청도는 한국 사람들이 100여 년 전부터 들어와서 개발한 도시로 한국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한국인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를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청도에는 제조업이 4,000여 업체, 자영업, 무역회사(법인 포함)가 5,000여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1억 ~ 1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 현대, 넥센타이어 등 대부분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청도에는 한국인이 10만여 명 거주하고 하고 있으며, 한글을 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25만여 명인데 이는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학생이 5,000여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친척을 통해서 유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 재청도한국인회 기업도시 사업 설명회

#### ● 재청도한인회 개요

재청도한국인회는 청도 교민사회가 형성된 이래 한국투자기업의 경영지원 및 교민사회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청도한인상공회가 각계 여러 단체와 교민들의 뜻을 모아 2009년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확대 발전시킨 청도거주 한국인을 위한 기구로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재청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교민의 안녕과 번영을 도모함으로써 교민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의 틀을 조성하며, 청도시 중심의 한·중 경제발전 및 우호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사무국 산하에 10개 지회로 운영되고 있음.

● 일 시 : 2011. 5. 26(목). 14:00

● 장 소 : 재청도한국인회 사무실

● **접견대표** : 이강용 사무국장



<재청도한국인회 현판>



<기업유치 설명회 기념촬영>



<현판앞 기념촬영>



<기업유치 설명 및 질문·답변>

● **Question and Answer**

○ 재청도한국인회 이강용 사무국장

- 이곳 재청도한국인회를 방문해 주신 무안군의회 김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한인회에서는 한국기업을 위해 각종 지원 등 모든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교민 상호간의 교류 및 친목, 교민사회 발전과 번영, 한중 우호증진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음.
- 기업도시 관련 설명은 잘 들었으며, 중국 중앙정부의 투자 승인

까지 받은 무안기업도시가 지금까지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추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우며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 생각됨.

○ 무안군의회 김 산 의장

-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최근 국내여론에 의하면 중국시장의 여건 변화로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피드백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기업을 무안기업도시에 유치하고 싶다.

○ 제청도한국인회 이강용 사무국장

- 많은 기업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고민하는 기업이 있다. 중소기업은 아직 이주할 생각만 있고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더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은 기업의 환경 악화로 이주를 고려하는 기업이 상당이 있다.
- 규모가 큰 중국 내 기업 중에는 1+1(기존 기업은 중국에 두고 한국에 1개 기업을 두는 형태)이나 다국적 기업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어 무안기업도시에 많은 관심을 갖을 것이라 생각됨.

○ 무안군의회 정길수 의원

- 청도 한인회 기업들이 무안기업도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향은?

○ 제청도한국인회 이강용 사무국장

-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각종 세제혜택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인 기업들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는데 그 모임을 활용해서 무안기업도시 실무자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무안군의회 정길수 의원

- 오늘 방문은 무안군의회에서 기업이 무안으로 오면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 무안군의회 김천성 부의장

- 기존 중견시에만 집중적인 홍보가 되서 청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무안기업도시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 재청도한국인회 이강용 사무국장

-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이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홍보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며, 차후 실무팀과 협의하여 정기모임 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 2. 청도조선족기업인협회 기업도시 사업 설명회

### ● 재청도한인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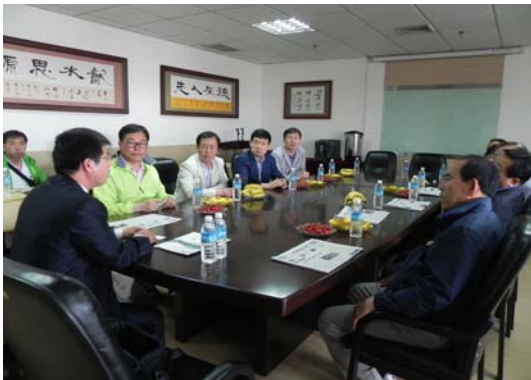
청도에는 조선족 동포가 20만명 정도가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운남성에서 이주하였다. 청도조선족기업인협회는 조선족으로 구성된 기업인 모임으로 대부분이 30~40대로 젊은 기업인이다.

기업인들이 젊은 이유는 높은 학식과 개혁바람, 높은 의식변화로 농사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을 탈피하고 잘살아 보자는 개혁바람으로 청도에 와서 생활하고 있으며,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사이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면서 성장하고 있다.

매년 10월이면 조선족민족대축제가 있으며 4~5만명이 참가한다.

청도조선족기업인협회에는 17개 향우회가 있으며, 향후회 회장이 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 일 시 : 2011. 5. 26(목). 15:30
- 장 소 : 청도조선족기업협회 회의실
- 접견대표 : 박영만 부회장



### 〈기업도시 설명 및 질문·답변〉

#### ● Question and Answer

##### ○ 청도조선족기업협회 박영만 부회장

-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김산 무안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창호 회장님께서 조선족지역 협회장 모임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라 하였음.
- 조선족 기업은 600여 업체에 3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대부분

30~40대 기업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이상의 학력자로 의식이 깨어 있는 젊은이들로 가난과 농사가 싫어 개혁바람과 함께 이곳에 왔다.

- 조선족은 배경과 자본이 없어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충실한 중소기업을 만들었다.
- 한 예로 한용태 투다리 사장은 한국의 투다리가 중국에 진출하여 여러 사업장을 냈으나, 실패로 1개의 매장만 유지하고 있을 때 그것마저 철수하는 하는 시점에 매점을 인수하여 지금은 130개의 체인점과 16여개의 분사를 만들어 연간 매출액 2억위안에 달하여 성공신화를 만들었다.
-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많은 공부와 한족과의 다양한 관계 및 화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선족을 잘 활용한 것도 성공 요인이다.

#### ○ 무안군의회 정길수 의원

- 젊은층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무안기업도시에 대해 알고 있는지?, 투자 할 의향은?

#### ○ 청도조선족기업협회 박영만 부회장

- 알고 있다. 당초에는 청도지역은 토지가격이 쏘는데 중국에서 공시가격을 10배 이상 올려냈다.
-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투자자본이 올라가서 힘들어 하고 있다, 특히, 자본금이 부족한 조선족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 토지가격의 적정성과 세금 완화, 그리고 관세를 완화하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
- 처음부터 대규모로 가면 힘들고 차근차근 성공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품에 한국이름과 중국이름과의 상품가격에 많은 차이가 있다.

### ○ 무안군의회 김 산 의장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기업도시를 기반시설이 다된 후에 유치는 늦다.
- 오늘 청도 한인회와 조선족기업협회를 방문한 목적은 한족보다 조선족이 많이 투자하여 많은 이득을 보도록 도움을 주고 싶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투자를 부탁한다.

### ○ 청도조선족기업협회 박영만 부회장

- 중국은 부동산가격과 투자를 억제하고 있어 중국자본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주도에 중국자본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 평생 재산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한국에 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무안기업도시는 차후 전망 있는 투자처라 자신한다.
- 조망 간 기업도시 실무진과 충분한 투자설명회를 거쳐 시찰단을 구성하여 한번 방문할 의향이 있다.

### ○ 무안군의회 김천성 부의장, 정길수 의원

- 무안군과 무안군의회는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한 기업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림.

## 3. 청도시 상무국 방문 기업도시 유치 설명회

● 일 시 : 2011. 5. 26(목). 16:30

● 장 소 : 청도시 상무국 회의실

● 참여인원 :

○ 중 국 측 : 5명(투자촉진 2처(한국담당) 오일용 부처장, 대외경제협 작처 고비설 부처장, 외상투자유치 원희 담당 외 2명

○ 한 국 측 : 13

- 무안군의회 : 6명(김산 의장, 김천성 부의장, 정길수, 임덕수,

정철주, 최옥현 의원)

- 공 무 원 : 7명(김운 의회사무과장의 직원4명, 기업도시사업단 김갑송 단장의 1명



<청도시 상무국>



<상무국 직원과 기념촬영>



<기업도시 설명 및 좌담>

### ● Question and Answer

#### ○ 청도시 상무국 오일용 부처장(한국담당)

※ 한국어에 아주 능통함.

- 무안군의회 김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청도시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 한국기업은 1980 ~ 1990년에는 임가공의 소기업, 1997년까지는 섬유, 약세사리를 생산 수출하는 중소기업, 1997년 IMF때 청도시에서 경제 등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한국의

대기업(현대, LG, 포스코 등)들이 대부분 들어왔다.

- 청도는 제2의 한국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10만명이상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고, 한국인 유학생이 5,000여명에 달한다.
- 한국은 청도시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센터, 생산기술 협력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청도는 전남 지역은 없으나 대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부산과도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 한국과 경제적인 요인 등 해외투자가 잘 되었으면 한다.

#### ○ 무안군의회 김 산 의장

-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오일용 , 고비설 부처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 대한민국 기업이 청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청도시장님을 비롯한 청도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 무안군의 한중미래도시사업은 중국 상무부에서 지정한 해외경제협력단지로서 중경시와 출자를 해서 추진되고 있음.
- 5분거리에 무안공항, 30분거리에 목포신항만, KTX 도로망을 가지고 있으며, 220km의 해안선은 청도와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 청도시가 많은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안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 주시길 바라며,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무안 군의회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 청도시 상무국 오일용 부처장(한국담당)

- 중국상무부에서 지정을 받았다니 놀랐으며, 앞으로 실무진과 협의하여 계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청도국제가전전자박람회 가 7월중에 개최 계획인데 무안군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제일

좋은 자리에 무안기업도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기업을 유치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며, 계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무안을 한번 방문하고 싶음.

**○ 청도시 상무국 고비설 부처장(해외투자담당)**

- 무안군의회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함
- 중국기업이 해외투자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몇 년동안 한국과의 무역이 많았으며, 많은 프로젝트는 무역에 치중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에서 한국에 해외경제협력단지로 승인된 내용은 처음 들었으며, 상무부에서 지정된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대부분 투자를 원하는 국가들은 청도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최근에는 파키스탄에서 투자 설명회를 가져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현재 청도 기업들이 제주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기업들은 한국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고 투자를 원하고 있음.
- 무안도 실무진과 협의하여 사업설명회를 갖기를 원하며, 이런 좋은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중국기업이 무안에 많이 참여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무안군의회 김천성 부의장, 정길수 의원, 정철주 의원, 임덕수 의원, 최옥현 의원**

- 무안군과 계속적으로 진행을하기를 원하며, 청도시가 무안에 투자하면 무안군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드리며, 투자기업들과 무안을 방문해 주시기를 희망함.

## ▣ 상해(SHANGHAI)

### 1. 상해의 기본 현황

● 공식명칭 : 상하이직할시(北京直轄市). 약칭은 호, 별칭은 신(申)이다

● 위 치 : 중국 양쯔강 하구

● 면 적 : 6,340.5km<sup>2</sup>

● 인 구 : 1,810여만명

#### ● 행정구역

2007년 현재 18개 구(區), 1개 현(縣)

☞ 18개 구: 금산구(金山區), 송강구(松江區), 남회구(南徊區), 청포구(靑浦區), 봉현구, 황포구(黃浦區), 서회구(徐徊區), 로만구, 정안구(靜安區), 장녕구, 갑북구(匣北區), 보타구(普陀區), 양포구(楊浦區), 홍구구(虹口區), 보산구, 민행구, 가정구(嘉定區), 포동신구(浦東新區)

☞ 1개 현: 봉명현(崇明縣)

#### ● 연 혁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도시이자 국제도시이며 세계 10대 항구중의 하나이다. 상하이의 지명은 10세기 송대에 우쑹강(吳淞江)지류의 상하이푸(上海浦)에서 유래했으며, 과거에는 호독(嫉瀆)이라 불리었다. 남송시기(公元1267年)에는 상하이푸 서안(西岸)에 진(鎭)을 설치하여 상해진(上海鎭)이라 명하였으며, 원나라(公元1292年)때에는 상하이현(上海縣)이 설치되었다. 1927년 상하이특별시로 명명되었으며 1930년 상하이시(市)로 변경되었다.

16세기에 상하이는 이미 전국 면방직수공업의 중심지역이 되었으며, 청나라 때는 해관이 설립되었다. 1842년 아편전쟁이후에는 구미제국과의 통상을 위한 개항장이 되었는데, 이 곳에 조계(租界)가 설치되어 1945년까지 치외법권의 외국인 거류지역이 존속하였다. 이후 공산당정권 수립 후 직할시가 되어 중국 제1의 상공업도시로 발전하였

으며 1984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해 상하이 전체가 연해개방도시로 지정되었다.

## ● 교 통

상하이는 시 외곽을 따라 순환하는 '외환 순환도로'인 와이환선(外環線)과 시내중심부를 도는고가도로인 내이환선(內環線), 그리고 내이환선과 와이환선 중간에 중환선(中環線)이 있다. 동서로는 옌안까오지아루(延安高架路), 남북으로는 난베이까오지아루(南北高架路)가 있는데 이 도로들을 모두 연결하면 申(신)자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신자형(申子形)도로라고도 말한다. 그리고 상하이의 도심부에는 남포(南浦)대교와 양포(楊浦)대교가 있으며 도로 총길이는 9,800km이다. 상하이의 지하철은 현재 1호선의 연장인 5호선까지 개통되었으며 2007년 현재 2호선의 연장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상하이 엑스포가 개최되는 2010년 이전까지 2,3호선 연장선과 6,7,8,9호선을 모두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장기간 끌어왔던 총 266억달러 규모의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고속열차 사업이 중앙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았는데 이 고속열차는 오는 2010년부터 운행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상하이는 중국 항공교통과 수로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상하이항구는 주요 국제항구이며 현재 만톤급 부두는 50개로 전국 물동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내륙수로도 발달되어 있는데 이 수로는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양저우(揚州) 그리고 항저우(杭州)까지 연결된다. 항공교통으로는 국내 20여개 대도시 직항 노선 60여개와 국제선 20여개국 직항이 있으며 1999년 포둥 국제공항을 개항하였다. 상하이 남서쪽에 있는 홍차오(虹橋)국제공항은 1921년 개항되어 1963년 국제공항으로 승격된 후 1964년에 민영화되어 상하이 공항의 중심역할을 담당해 왔다. 푸둥공항이 개항하면서 다시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축소되었으나 최근 다시 한-중-일 간의 국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하이 도심 중앙도로와 항구>

## ● 도시 경제

### 1) 도시 경쟁력

2007년 3월 25일 중국사회과학원에서 “2007년 중국도시경쟁력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200개 도시에 대하여 시장규모, 경제성장, 생산효율, 자원절약, 경제구조, 생활수준의 6개부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이들 6개 항목을 종합한 종합경쟁력 순위를 보고하고 있다. 상하이의 종합경쟁력은 홍콩, 선전 다음으로 2006년에 이어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시 정부가 발표한 <상하이외자투자환경백서>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 중 투자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10대 외국자본투자기업 순위는 GE, SUMITOMO, HITACHI, ITOCHU, MITSUBISHI, SIEMENS, FUJIFILM, MARUBENI, VW 순으로 나타났다.

이 10개 기업들의 프로젝트 총규모는 561개 이며, 총투자규모는 48.28억에 달한다. 2006년 말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제세 500대 기업 중 257개 기업이 상하이에 투자하고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227억 달러에 달한다. 2007년 현재 상하이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을 포함한 5개 산업기지, 장강하이테크단지(長江高科技園區) 등 7개 종합개발구, 그리고 푸둥신구와 3개 국가급 개발구, 그리고 10개 시급 개발구와 12개 농업개발구를 보유하고 있다.

## 2) 상하이 푸둥

중국의 경제특구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중국내에 설치된 특별구역이다. 1979년부터 광둥성(廣東省)을 시작으로 경제특구가 설치되었으며 1984년에는 연안 14개 도시가 특구와 같은 연안 개방도시(沿岸開放都市)로 지정되었다. 1990년 경제특구에서 외국기업의 토지사용권 취득이 공식으로 인정되었고 상하이[上海]의 푸둥[浦東]지구가 제8차 5개년계획의 주요 개발구로 지정되어 대외개방의 거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90년 지정 이후 11년 만에 70여개국에서 총 344억 원 규모, 6,600여건의 투자를 이곳에 하였으며 다국적 지역본부 40여개를 유치하였다. 푸둥은 중국 상하이 동부에 위치하며 공식명칭은 푸둥신구(浦東新區)이다. 면적은 약 522.8 제곱킬로미터이며 2007년 인구는 약 180만명에 달한다. 농경지였던 푸둥은 1990년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고층빌딩, 지하철, 공항, 항만, 자기부상열차 등이 건설되는 등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린자웨이 금융무역지구 등 중국의 금융 및 상업허브로 성장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한 상하이는 이미 각종 국제 전시회와 전람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푸둥은 2003년 한국의 여수를 제치고 2010년 세계무역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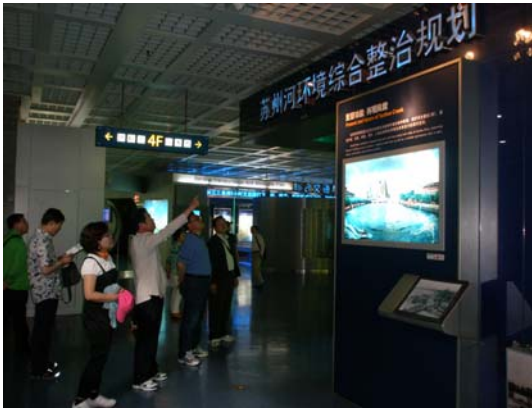
## 2. 상해 주요 문화 탐방

### ● 상해 도시계획전시관

상해의 도시 계획관은 토지면적이 약 4000평정도 되고 건축의 높이는 43.3미터 정도 되는 규모로 인민대로에 자리 잡고 있다.

전시관 빌딩은 중국 전통 성문 형태에서 디자인을 얻어 대칭구조로 설계했으며, 현대적 감각과도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서 미적 감각을 한층 더 부각 시켰다.

상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시한 이 상해 도시계획전시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들오는 것이 붉은 중국 국기아래 한바퀴 회전하고 있는 상해시 모형이다. “중국의 미래 도시 상해”라는 말이 거짓으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다.



### 〈상해 도시계획 전시관 외·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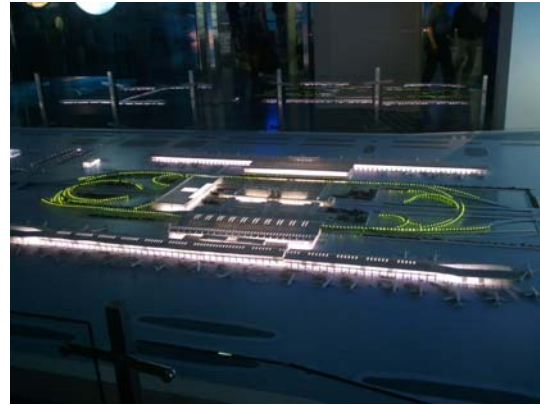
1층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일과 이분의 일층에는 상해의 변천사를 움직이는 모형으로 만든 단막극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파나마 박람회에서 금상을 받은 중국산 포도주 브랜드와 예수상이 전시되어 있다. 이 예수상은 공식적인 시가가 13000달러라고 한다.



### 〈상해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모형 도시〉

2층에서는 상해 개방 50년간을 반영해서 만든 상해시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보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온다.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엿볼 수 있다.

3층과 4층에는 상해시의 총체적인 계획과 5~10년 사회·경제 발전계획 빛 방향을 제시, 전체적인 상해 도시 개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홀로그램을 도입해서 상해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전시물도 볼만하다.



〈미래 항공수요를 위한 공항 계획도〉



〈미래 도시 모형〉

5층은 커피숍과 회의실이 위치해 있다. 지하에는 옛날상해거리를 재현해놓았다. 인민광장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고, 거리에는 1930년대 상해의 각종 건물양식을 살펴 볼 수 있다.



〈상해 엑스포 기념관 및 도시 모형도〉

◎ 중국 최고 높이의 방송 관제탑, 동방명주탑



<상해의 동방 명주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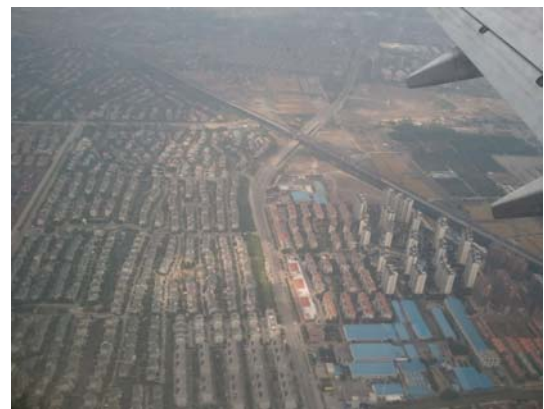
1991년 7월 착공에 들어가 1994년 10월에 완성한 동방명주탑은 상해의 월스트리트라 할 수 있는 푸둥 루자쭈웨이 금융 구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 수신탑으로써 총 높이가 468m로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 중국의 펄 TV를 운영하는 미디어 그룹인 동방명주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263M 와 350M에 관광 전망대가 있으며 350M 전망대에는 귀빈실이 따로 있고, 일반 관광객들은 263M 전망대를 이용하게 되어있다. 동방명주탑 내부에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10초 만에 전망대에 도착하여 상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탑 주변의 초고층 빌딩들과 황푸강을 바쁘게 오가는 선박들은 상해의 발전상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동방명주탑에서 바라본 상해>

### ▣ 주요 시사점

- 단 기간 내에 급속도로 성장 발전한 중국을 보면서 거대한 면적과 인구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시사점이 큼.



〈비행기에서도 산이 보이지 않은 광활한 대지〉

- 공산주의 체계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경제 부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국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되며, 우리도 많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임.
-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으로 중국이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1국2체제라는 구도로 더욱 발전 성장시키고 있으며, 홍콩은 금융·경제로 마카오는 외국투자를 허용하여 라스베가스보다 나은 카지노의 도시로 성장시킨 것은 중국의 저력을 실감케 함.
- 청도시의 방문으로 중국도 많은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기업도시 설명회를 통한 청도시의 상무국 관계자의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차후 실무진과 원활한 소통

을 통하여 투자유치설명회 등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해외투자는 정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여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에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인 청도시 상무국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함.
- 청도시 한국인 기업들이 많은 성공과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자부심을 느꼈으며, 삼성 홍보전광판 등 중국에서의 한국제품 삼성과 LG 등 인기는 대단하여 자긍심을 느끼게 함.
- 중국의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만 성공한 기업들은 평생 자신의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해외에 많이 투자하고 싶어 하며, 한국의 제주도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음.  
지속적인 기업도시 홍보와 투자 유치에 힘쓴다면 우리군 투자유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사료됨.
- 이번 연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고, 기업도시 홍보를 위한 재청도한인회와 청도조선족기업협회, 특히 청도시상무국의 방문은 현재의 한국인의 기업여건과 환경 그리고 중국기업의 여건 등을 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큰 성과임.
- 이번 방문을 통해 무안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청도시에 중국정부 상무국 승인을 받은 무안기업도시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안기업도시에 큰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되었다는 것이 이번 연수의 가장 큰 성과임.

## ■ 우리군과의 접목

- 중국의 기업은 1+1(본국 1, 해외 1기업)의 기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의 투자를 매우 선호하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중국의 부동산 투자의 억제로 인하여 해외로 투자를 늘리고 있어 지금이 가장 호기라고 생각되며, 일본의 지진과 원전으로 불안한 일본의 자본가들도 한국으로 투자 원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일본 자본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므로 국내해외 여행이 외국인을 관광객으로 유치하는 전략과 계획이 필요함.
- 외국관광객이 전남에 오면 특정한 관광지만 견학하고 부산이나 제주도로 가서 숙박을 하는 실정임.  
 그 이유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관광객이 말하는 숙박은 우리가 말하는 모델이 아닌 조식이 제공된 호텔을 말한다.  
 우리군의 호텔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대중국의 관광객 유치에는 꼭 필요하다. 중국관광객은 80~100명의 대규모로 관광한다.
-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런 음식 중 필리핀의 부화 직전의 계란(어린병아리) 숙회와 한국의 낙지다.  
 우리 군을 비롯한 전남은 음식문화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며 외국인 관광객은 무안의 낙지, 삭힌 음식(홍어, 젓갈, 묵은김치 등)을 아주 싫어하며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그에 대한 대책과 낙지 등의 퓨전요리 개발이 시급하다.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광자원이며 인위적으로 꾸민 관광은 식상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 나라의 삶의 모습, 생활모습, 전통문화 예술이 큰 관광자원이 되며, 인상적으로 남는 것이 큰 교훈이라 함.
- 마카오에 자동차 경주가 매년 1회 열리게 되는데 어디를 가나 경기장이 없다. 그 이유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경기장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열리면 도로가 전면 통행 금지되며, 경기가 끝나면 일반도로가 된다.  
 도로 가장 자리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설치되어 있다. 예산 절약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 ▣ 건 의 사 항

- 상해에서 무안공항으로 출발하는 항공 시간 조정 건의
  - 당 초 : 상해공항에서 8시 50분 이륙
  - 변 경 : 상해공항에서 9시 50분 이륙
  - 변경이유
    - 중국에서는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 티켓팅을 하여야함으로 조식을 하지 못하고 도시락으로 대체
    - 1시간을 늦추어 준다면 조식을 하고 여유로운 여행이 될 것이며, 많은 관광객이 무안공항을 이용 할 것으로 사료됨.